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중심 —

박 경 현* · 백 경 임**

경일중학교*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Wangtta and the effects of
the Guardian Angel Program among Adolescent Males.

Park, Kyong-Hyun* · Baik, Kyong-Im**

*Kyong Ille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 of male students ostracized as the black ship (Wangtta in Korean) in middle schools and the effects of the Guardian Angel program on the decrease in Wangtta.

428 first graders of two junior high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test group (n=195) and a control group (n=233). SPSS/PC+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data,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χ^2 -test.

The outcome of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the following.

74.7% of the subjects thinks that there is Wangtta going on in there classes. Wangtta often comes to pass during the recesses (74.2%) and lunch times (51.6%). Those who are easily exposed to Wangtta are most likely to be both snobbish and pedantic.

Those who lead Wangtta turn out to be good at fighting (56.4%), and dominant in the hegemony of the class, depending on the way of ignoring or not playing with the victims (69.3%). In the case of bearing witness to Wangtta, 36.9% of the subjects try to overlook the case.

Now, let me take a look at the effect of the guardian angel program on the decrease in Wangtta. The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p<0.05$) in the number and the phenomena of Wangtta perceived by students in both advance and post tests. The program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pects of students' behavior in relation to Wangtta in a desirable way ($p<0.1$). Though the sociality index of the vic-

tims does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t exerts a generally positive effe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학교만큼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곳도 없을 것이다. 특히 학교는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생활의 장(場)인 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며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왕따"라 부른다.

교육부가 1998년 9월 전국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4천여 건에, 5천4백여 명이 왕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8.12.8., 27). 대검찰청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본부에서 1998년 9월부터 3개월간 접수한 학교폭력 신고전화 4천7백여 건 중 왕따 피해로 인한 신고가 1백74건으로, 특히 신고 전화를 건 피해자 중 5명이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13명이나 되었다. 실제 지난 98년 11월 4일 울산의 어느 여고생은 '못 생겼다'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목을 매어 자살한 사례도 있다(조선일보, 1998.12.8., 27). 이 외에도 63명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학교 가기가 불안하다는 응답도 93명이나 되었다(조선일보, 1999.1.5., 25). 이른바 '왕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왕따'로 인한 상처는 비단 왕따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왕따를 주도하거나 왕따에 동참한 아이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급우를 보면서 왕따를 주도하거나 왕따에 동참한 아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도 클 것이다. 또한 왕따 피해 학생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왕따를 묵인해 주는 아이들은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을 조장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현상은 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왕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왕따 해결책에 있어서도 가정, 학교, 사회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해결 방안을 활용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뜻을 두게 되었다.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활동지도 프로그램집(1990)에 수록된 '사랑의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왕따 현상에 맞추어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친구를 돕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수호천사 프로그램이라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왕따'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발된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왕따의 감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선정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왕따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나)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현상의 감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나-1)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현상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나-2)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가?

나-3)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당하는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II. 왕따의 개념 정의

'왕따'란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隱語)로 '왕(王)'

은 접두어로서 국어사전에 의하면 '아주 큼'을 나타내는 말이고 '으뜸, 우두머리'의 뜻도 있다. '따'란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 또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준말이다. 따라서 '왕따'의 뜻을 풀어보면 '최고의 따돌림' 또는 '최고로 따돌림 당하는 아이'로 따돌림 받는 사람과 따돌림 행위 자체를 다 포함한다(박경숙, 1998, 60).

'왕따'라는 용어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이じめ(괴롭힘)' 등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처럼 '왕따'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왕따'라는 용어가 은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서울시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왕따'를 주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박경숙(1998)의 연구에서도 '왕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왕따 현상을 집단 따돌림이라 했을 때 괴롭힘의 뜻이 살아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왕따'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모두 포함하면서 짧고 의사전달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왕따'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왕따를 '따돌림 받는 사람'과 '따돌림 자체'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왕따'를 주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 본 박경숙의 이유와 동일하며, 한가지 덧붙이자면 '왕따'란 이제 더 이상 10대들의 은어가 아닌 일상용어가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왕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Ⅲ.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개발

1. 수호천사 프로그램 구성의 배경

왕따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본용(1997, 26-28)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걱정이 많아 자신의 행동 관찰에만 집중하게 되어 타인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또래들의 배척을 지나치게 심각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한편, 김용태(1997)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를 따돌리는 주된 이유에 대해 가해자 편과 관찰자 편에서는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다'(각각 87.6%, 83.4%)는 생각이 압도적인데 반해 피해자 편에서는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41.9%)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여기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피해자들이 따돌림 당할만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각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이유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따돌림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거대화화 확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 풍토가 서로의 인간 관계를 경직화시켜 교사와 학생, 심지어 같은 반 학생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익명성 현상을 빚어내 친구를 따돌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은 암묵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언어화되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즉 아이들의 왕따 현상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횡적인 관계로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나 교사가 중적인 관계로 언어화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해결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즉, 왕따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왕따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은 자칫하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왕따'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이들은 암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생긴 왕따 현상이 암묵적인 상태 그대로 모르는 사이에 수습되어 가는 것이 최고의 대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와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박경숙, 1998).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왕따' 학생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담임이 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학교의 경우엔 '왕따' 학생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적 중재자가 활용될 수 있는데 Strain(1982)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상호작용은 부모,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보다는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왕따 발생시 피해 학생 구제를 최우선으로 왕따 현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당연하지만 왕따 가해 학생에 대해 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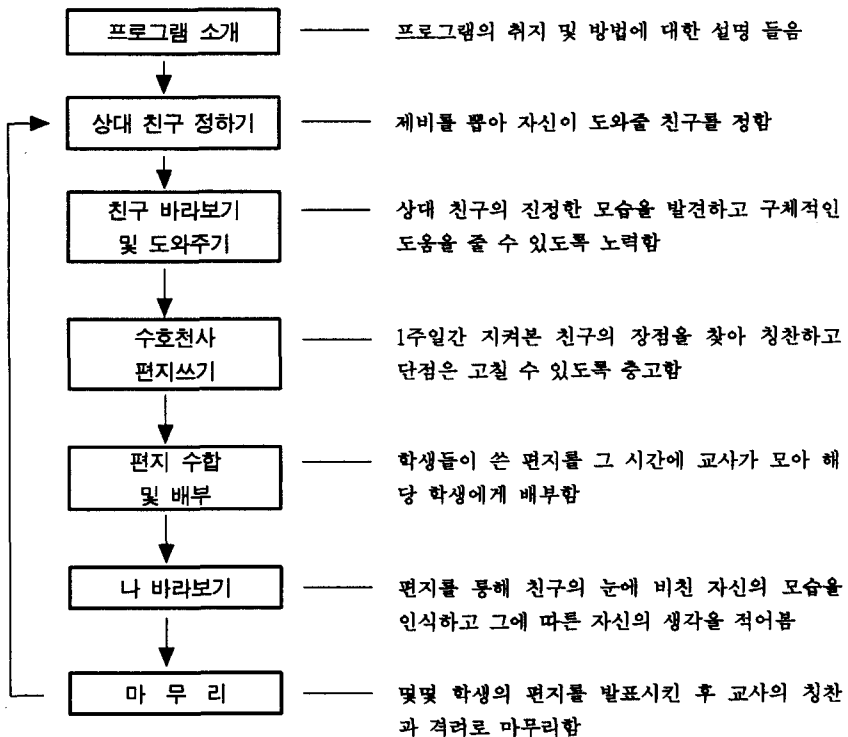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한다는 식의 대책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나 이는 왕따의 존재를 학생들에게 더욱 부각시키며 오히려 왕따 현상을 음성적으로 만들어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왕따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학생들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친구들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킴으로 왕따 현상의 감소는 물론 나아가 학생들이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급우들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 상호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왕따 현상의 감소 및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자 하여 청소년활동지도 프로그램집(1990)에 수록된 '사랑

의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왕따 현상에 맞추어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구성

이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급구성원 상호 간에 발견한 구성원들의 인간상, 생각, 태도, 장단점을 구성원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또한 자신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나는 누구인가'를 비교하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으며 급우들 간에 서로 이해하며 도움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집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특히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왕따'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급우들의 관심과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학급 내 '왕따' 현상의 감소 및 예방을 꾀한다.



<그림 1> 수호천사 프로그램 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한 S중학교와 T중학교 1학년 남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195명)과 통제 집단(233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단, 왕따 실태 조사의 경우는 분석자료로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한 420부만을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사회성 검사는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왕따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 집단 195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연구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학생이 발달 단계상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초기에 해당하고(장휘숙, 1999, 309), 여러 통계자료¹⁾에 의하면 왕따 현상이 중학생 단계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따돌림 방법에 있어서 여학생은 수동적이면서 상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시하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함(김용태, 1997, 68-69)으로써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 = 420 (무응답 제외)

구 분		학생수	비율	구 분		학생수	비율
종교	기독교	49	11.7	형제 자매 수	혼자	49	11.7
	천주교	38	9.1		2명	296	70.8
	불교	215	51.4		3명	54	12.9
	무교	114	27.3		4명이상	19	4.6
	기타	2	0.5				
	계	418			계	418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400	95.7	부모 동거 여부	모두 동거	380	90.7
	부만 생존	4	1.0		부만 동거	12	2.9
	모만 생존	14	3.3		모만 동거	24	5.7
					모두 동거 안함	3	0.7
	계	418			계	419	
부 학력	중졸이하	91	22.9	모 학력	중졸이하	108	27.0
	고졸퇴 및 고졸	220	55.4		고졸퇴 및 고졸	239	59.7
	대중퇴 및 전문대졸	15	3.8		대중퇴 및 전문대졸	16	4.0
	대졸이상	71	17.9		대졸이상	37	9.3
	계	397			계	400	
부모 친밀 도	매우 친밀	279	67.1	형제 자매 친밀 도	매우 친밀	213	51.1
	약간 친밀	105	25.2		약간 친밀	114	27.3
	별로 친밀하지 못함	28	6.7		별로 친밀하지 못함	35	8.4
	전혀 친밀하지 못함	4	1.0		전혀 친밀하지 못함	11	2.6
					형제자매가 없다	44	10.6
	계	416			계	417	

1) 교육부통계자료(조선일보, 1998.12.8., 2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본부 통계자료(조선일보, 1999. 1.5., 25),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박경숙, 1998) 등.

구 분		학생수	비율	구 분		학생수	비율
담임 과의 관계	아주 좋음	57	13.7	학교 성적	상(1-10등)	113	27.0
	좋은 편임	158	37.9		중(11-30등)	233	55.6
	보통임	181	43.4		하(31-40등)	73	17.4
	별로 좋지 않음	19	4.5				
	아주 나쁨	2	0.5				
	계	417			계	419	
부 직업	단순 노동직	45	11.3	모 직업	단순 노동직	29	7.1
	취직한 기술자	101	25.3		취직한 기술자	61	15
	자영업	157	39.3		자영업	89	21.9
	사무직	66	16.5		사무직	24	5.9
	자유·고위관리직	13	3.3		자유·고위관리직	3	0.7
	무직	17	4.3		무직	201	49.4
	계	399			계	407	
경제 상태	여유 있음	13	3.1	6세전 양육자	부모	318	76.4
	약간 여유 있음	120	28.8		조부모	82	19.7
	보통임	242	58.2		그 외	16	3.9
	곤란함	34	8.2				
	매우 곤란함	7	1.7				
	계	416			계	416	

연구 대상자들의 왕따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74.7%가 자신의 학급에 왕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8.6%의 학생들은 왕따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왕따 현상은 '쉬는 시간'(74.2%)과 '점심 시간'(51.6%)이 주요 발생 시기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업 시간, 청소 시간, 방과후, 등학교 시간, 조종례 시간 등 어느 시간이나 일어나고 있었다. 왕따가 되기 쉬운 학생의 특징으로는 '잘난 척하는 아이'(59.2%)가 가장 많았고 왕따가 된 학생은 주로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돌림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34.5%), '도와주고 싶다'(20.6%) 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은 '싸움을 잘 하는 아이'(56.4%)등으로 왕따를 당하는 학생보다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왕따 방법으로는 '무시

하거나 같이 놀지 않는다'(69.3%)가 가장 많았다. 왕따시키는 아이를 보면 본인도 '따돌림 당해봐야 한다'(31.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를 따돌리는 이유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따돌림 당할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8.4%로 가장 많이 나왔다. 한편, 학생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73.3%)이 왕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별 반응이 없거나 원인 분석 없이 결과만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2. 연구 절차 및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는 표2에 나타난 것 같이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학급별로 왕따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함

〈표 2〉 실험 계획

구 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일 시	1999. 5. 27. ~ 6. 3.	1999. 6. 7. ~7. 10.	1999. 7. 12. ~ 7. 16.
실험 집단	사회성 검사 왕따 설문 조사	수호천사 놀이 4회	사회성 검사 왕따 설문 조사
통제 집단	왕따 설문 조사		왕따 설문 조사

으로써 사전(事前)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급별로 실시하였는데, 1회 실시하는데 1주일이 소요되며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가능한 1주일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엔 그 일자가 다소 조정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종료 후 사전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후(事後) 검사를 실시하였다. 단, 사회적 검사는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왕따 학생의 사회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 집단에만 사전·사후의 왕따 실태 조사에 앞서 실시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왕따에 관한 실태 조사와 왕따 현상 감소 및 예방에 대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왕따 실태 조사

왕따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박경숙(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용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1999년 2월 중학교 1, 2, 3학년 남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왕따 현상에 대해 조사한 서술형 설문지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는 왕따에 관한 사항이며 제2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것이다.

2) 사회적 측정검사

본 연구의 사회적 측정검사는 Moreno(1953)에 의해 창시된 사회적 측정 검사법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사회적 측정검사의 목적은 학급집단의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사회적 수용도를 알아보는 데 있다.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의 설정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문항은 같이 앉고 싶으나 아니냐에 따른 좌석 동반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급우 중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친구를 지명하게 하는 동료 지명법(peer nominat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택 허여수 무제한의 상태로 선택 지명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기서 좌석 동반의 일반적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학생 상호관계에 보다 더 항구적 측면에 기초하여 가장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쓰임새 있는 결과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며, 선택 허여수를 무제한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측정검사에 있어서 집단성원에게 주어지는 선택 허여수가 제한되었을 때보다 무제한으로 하였을 때 좀 더 타당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집단 내의 정서적인 확장성(emotional expansiveness)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왕따 학생들의 사회적 지수는 Proctor와 Loomis가 고안한 사회적 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김정환, 1999, 177 : 김병성, 1997, 282 : 박도순, 1992, 414).

$$\text{선택 지위(Choice Status)} = \frac{C}{(N-1)} = CS$$

$$\text{배척 지위(Rejection Status)} = \frac{R}{(N-1)} = RS$$

$$\text{선택·배척 지위 (Choice - Rejection Status)} \\ = CS - RS = CRS$$

(C = 특정 개인의 피선수, R = 특정 개인의 피배척 수, N = 집단 구성원의 수)

예를 들어, 41명이 정원인 학급의 한 학생이 10명의 친구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2명의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경우 이 학생의 사회적 지수는 다음과 같다.

$$\text{선택 지위(Choice Status)} = \frac{10}{(41-1)} = 0.25$$

$$\text{배척 지위(Rejection Status)} = \frac{2}{(41-1)} = 0.05$$

$$\text{선택·배척 지위 (Choice - Rejection Status)} \\ = 0.25 - 0.05 = 0.2$$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으로 SPSS/PC+를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χ^2 -test를 하였으며, 왕따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유의수준 $p < 0.05$ 와 $p < 0.1$ 에서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V.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왕따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왕따 가해 경험(표3)은 부모 생존여부, 부모 동거여부, 담임과의 관계는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왕따 가해 경험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해 당 학생수	비율	통계치	구 분		사례수	해 당 학생수	비율	통계치
종교	기독교	49	12	24.5	$\chi^2 = 1.882$ $p = .579$	형제 자매 수	혼자	49	17	34.7	$\chi^2 = 2.723$ $p = .256$
	천주교	38	13	34.2			2명	293	78	26.6	
	불교	212	65	30.7			3명이상	72	25	34.7	
	무교	113	29	25.7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396	109	27.5	$\chi^2 = 9.435$ $p = .002^{**}$	부모 동거 여부	모두 동거	376	103	27.4	$\chi^2 = 4.509$ $p = .034^{**}$
	편부모	18	11	61.1			편부모 동거 (모두 동거안 함)	39 (3)	17 (1)	43.6	
부 학력	중졸 이하	91	23	25.3	$\chi^2 = 1.145$ $p = .564$	모 학력	중졸 이하	107	28	26.2	$\chi^2 = 2.776$ $p = .250$
	고졸	216	63	29.2			고졸	238	76	31.9	
	전문대이상	86	28	32.6			전문대이상	51	11	21.6	
부모 친밀 도	매우 친밀	277	71	25.6	$\chi^2 = 5.257$ $p = .072^*$	형제 자매 친밀 도	매우 친밀	212	56	26.4	$\chi^2 = 1.158$ $p = .560$
	약간 친밀	105	37	35.2			약간 친밀	112	34	30.4	
	친밀하지 못함	30	12	40			친밀하지 못함	45	15	33.3	
담임 과의 관계	아주 좋음	57	15	26.3	$\chi^2 = 8.581$ $p = .035^{**}$	학교 성적	상(1-10등)	112	36	32.1	$\chi^2 = 0.932$ $p = .627$
	좋은 편임	156	37	23.7			중(11-30등)	232	63	27.2	
	보통임	179	57	31.8			하(31-40등)	71	21	29.6	
	나쁨	21	11	52.4							
부 직업	단순노동직	44	12	27.3	$\chi^2 = 1.377$ $p = .927$	모 직업	단순노동직	29	7	24.1	$\chi^2 = 3.94$ $p = .414$
	취직한 기술자	100	26	26			취직한 기술자	59	21	35.6	
	자영업	155	42	27.1			자영업	88	26	29.6	
	사무직	66	22	33.3			사무직	24	9	37.5	
	자유,고위관리 직	13	3	23.1			무직	200	50	25	
	무직	17	5	29.4							
경제 상태	여유있음	132	41	31.1	$\chi^2 = 0.636$ $p = .728$	6세전 양육자	부모	314	89	28.3	$\chi^2 = 0.48$ $p = .780$
	보통임	239	66	27.6			조부모	82	26	31.7	
	곤란함	41	13	31.7			그 외	16	4	25	

* : $p < 0.1$, ** : $p < 0.05$

n = 420 (무응답 제외)

$p < 0.05$ 수준에서, 부모 친밀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왕따 가해 경험이 부모 생존여부나 부모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양부모하의 아이들보다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담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52.4%가 왕따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친밀도 역시 부모와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수록 왕따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 부모 학력이나 직업, 가정의 경제적 상태, 6세 이전 양육자, 형제자매수와의 관계, 학교 성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측면이 아이들의 왕따 가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자(他者)인 부모나 담임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의 아이들이 친구를 대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왕따 피해 경험(표4) 역시 부모 친밀도, 부모 학력은 $p < 0.05$ 수준에서, 경제적 상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 친밀도는 왕따 가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친밀하지 못할수록 왕따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있어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왕따 피해 경험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해 당 학생수	비율	통계치	구 분		사례수	해 당 학생수	비율	통계치
종교	기독교	49	10	20.4	$\chi^2 = 4.791$ $p = .188$	형제 자매 수	혼자	49	10	20.4	$\chi^2 = 1.938$ $p = .379$
	천주교	38	11	29			2명	293	46	15.7	
	불교	213	35	16.4			3명 이상	73	16	21.9	
	무교	113	16	14.2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397	67	16.9	$\chi^2 = 1.427$ $p = .232$	부모 동거 여부	모두 동거	377	66	17.5	$\chi^2 = 0.111$ $p = .739$
	편부모	18	5	27.8			편부모 동거 (모두 동거안 합)	39 (3)	6 (1)	15.4	
부 학력	중졸 이하	91	9	9.9	$\chi^2 = 12.673$ $p = .002^{**}$	모 학력	중졸 이하	108	7	6.5	$\chi^2 = 13.144$ $p = .001^{**}$
	고졸	218	34	15.6			고졸	237	46	19.4	
	전문대이상	85	25	29.4			전문대이상	52	14	26.9	
부모 친밀 도	매우 친밀	276	43	15.6	$\chi^2 = 7.15$ $p = .027^{**}$	형제 자매 친밀 도	매우 친밀	213	34	16	$\chi^2 = 3.755$ $p = .153$
	약간 친밀	105	17	16.2			약간 친밀	112	16	14.3	
	친밀하지 못함	32	11	34.4			친밀하지 못함	45	12	26.7	
담임 교사 와의 관계	아주 좋음	57	10	17.5	$\chi^2 = 4.622$ $p = .202$	학교 성적	상(1-10등)	113	13	11.5	$\chi^2 = 4.15$ $p = .126$
	좋은 편임	157	23	14.7			중(11-30등)	231	43	18.6	
	보통임	179	30	16.8			하(31-40등)	72	16	22.2	
	나쁨	21	7	33.3							
부 직업	단순노동직	45	8	17.8	$\chi^2 = 4.096$ $p = .536$	모 직업	단순노동직	29	0	0	$\chi^2 = 10.67$ $p = .031^{**}$
	취직한 기술자	99	11	11.1			취직한 기술자	61	13	21.3	
	자영업	156	32	20.5			자영업	88	21	23.9	
	사무직	66	12	18.2			사무직	24	3	12.5	
	자유, 고위관리 직	13	3	23.1			무직	199	30	15.1	
	무직	17	3	17.7							
경제 상태	여유있음	132	24	18.2	$\chi^2 = 5.438$ $p = .066^*$	6세전 양육자	부모	315	56	17.8	$\chi^2 = 0.918$ $p = .632$
	보통임	240	35	14.6			조부모	82	11	13.4	
	곤란함	41	12	29.3			그 외	16	3	18.8	

* : $p < 0.1$, ** : $p < 0.05$

n = 420 (무응답 제외)

일을 해야하는 자영업이나 취직한 기술자인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왕따 피해 경험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왕따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왕따 피해 학생의 특징으로 '잘난 척하는 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여 대졸 학부모가 2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실정을 생각할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자칫 친구들 앞에 잘난 척

하는 아이로 비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왕따 피해 경험과 달리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아이들이 또한 왕따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질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현사회의 세대가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까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왕따 현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이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왕따 피해 경험이 형제자매 친밀도에서 다른 형제들과 친밀한 아이들보다 '친밀하지 못함'에, 담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나쁨'에 응답한 경우에 높

〈표 5〉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현상 감소 효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왕따 피해학생의 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실험 집단 (n = 191)	사전	1.31	1.204	9.28	.0025**
	사후	0.97	1.017		
통제 집단 (n = 229)	사전	1.52	1.240	0.09	.7690
	사후	1.48	1.287		

왕따 현상의 목적 횟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실험 집단 (n = 191)	사전	5.27	7.67	5.75	.017**
	사후	3.49	6.811		
통제 집단 (n = 229)	사전	5.87	7.730	1.53	.2166
	사후	5.01	7.147		

** : $p < 0.05$

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에서도 성적이 낮을수록 왕따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급 성적이 최하위 학생들의 경우 왕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현상의 감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에만 약 2개월간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각 집단별로 사전(事前)·사후(事後)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1〉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현상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학급의 왕따 학생수의 응답 결과에 대해 '없다'는 0, '1~2명'은 1.5, '3~4명'은 3.5, '5~6명'은 5.5, '7명 이상'은 7이라고 놓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표5)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경우 학생들이 지각하는 왕따 피해

학생수가 사전에 평균 1.31명이던 것이 사후엔 0.97명으로 떨어졌으며 $p < 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여러분 학급의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몇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0, '1~2번'은 1.5, '3~5번'은 4, '6~8번'은 7, '9~11번'은 10, '거의 매일'은 20이라고 놓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각각 분석을 한 결과(표5) 실험 집단은 수호천사 프로그램 실시 후 왕따 현상 목적 횟수가 평균 5.27회에서 3.49회로 떨어져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제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왕따 현상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2〉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가?

왕따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급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

〈표 6〉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에 대한 학생 행동양식의 변화에 대한 효과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실험 집단 (n = 191)	사전	-0.073	1.0966	3.27	.0712*
	사후	0.140	1.1362		
통제 집단 (n = 229)	사전	-0.119	1.0902	0.01	.9258
	사후	-0.109	1.1054		

* : $p < 0.1$

게 합니까? (또는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항목에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표6에서 보듯이 수호천사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행동 양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문제 2-3>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왕따 감소 및 예방에 대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호천사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측정

<표 7> 왕따 학생들의 특징

학반	번호	특 징	CRS	
			사전	사후
A	16	다소 잘난척하며 자기 뜻대로 해야하는 성격으로 특히 축구를 할 때 팀웍을 이루지 않고 혼자 공을 독차지하여 항상 상대팀에게 저서 원성을 많이 받으며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을 가끔 칩	-0.42	-0.52
	18	평소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말을 할 때도 입 속에 넣고 중얼거리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어렵고 혼자 지내는 시간 많으며 성격도 최하 수준이어서 아이들에게 은근히 무시 당함	-0.15	0
	28	점심시간에 남의 반찬은 먹으면서 자기 반찬은 나눠 먹지 않아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많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 아이들이 모두 멀리함	-0.34	-0.21
B	8	착하고 순하나 공부를 못하며 소극적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놀림을 많이 당하며 때로는 맞기도 함, 그러나 놀리거나 때려도 비시시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바로 취급을 당하며 계속해서 놀림을 당함	-0.08	-0.13
	15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며 장난이 심함	-0.33	-0.18
	16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뜻대로 하려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며 장난이 심함	-0.25	-0.31
	27	인상이 어둡고 생각이 부정적이며 거칠고 난폭함, 특히 야단을 맞거나 불만이 있을 때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혀 모두 가까이 가기 싫어함	-0.56	-0.1
	38	성품이 순하나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전교에서 꼴지 수준이며 숙제를 전혀 해오지 않고 지각도 잦은 등 매사에 열의가 없어 담임 교사에게 자주 꾸중을 듣는 편으로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수호천사 프로그램 실시 때에도 상대 학생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임함	-0.28	-0.41
C	1	정서장애 학생으로 지능이 떨어지며 몸이 왜소하고 조용하며 말이 없고 다소 지저분함, 아이들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시키는 등 놀림의 대상이 됨	-0.11	0.14
	14	잘난척하고 앞에 나서기를 매우 좋아하며 자기 중심적이어서 아이들이 싫어하고 따돌림, 수업시간에 수업의 흐름을 끊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학생이 말만 했다하면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들림	-0.23	-0.08
D	16	아이들과 잘 안어울리며 공부를 못해 아이들로부터 놀림과 무시를 당함	-0.05	0
	26	성품은 순하나 다소 자기 위주이며 물건을 잘 빌려주지 않으며, 특히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똥똥하고 둔해서 모두 싫어하며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됨, 수업 시간에 줄아서 자주 지적당하며 이것이 또 하나의 놀림감의 이유가 됨	-0.53	-0.6
	30	성적이 우수하고 잘난 척하며 얻기만 하고 남에게 배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으로 남이 잘되는 것을 못보는 성격임	-0.19	0
E	21	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잔심부름을 시킴, 수업시간에 교사의 눈에 띄지 않게 말을 시켜 공부를 방해함, 인상이 아무지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음	-0.39	-0.11
	22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으로 말이 없고 아이들이 시키는대로 함으로써 아이들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나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얼굴을 한 번 찡그릴 뿐 별다른 반응이 없음	-0.18	-0.29
	28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년초에 입술부위 피부 이상으로 놀림 당한 적도 있으나 오히려 아이들을 괴롭히는 쪽임,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며 신경질적이고 장난으로 약한 아이를 때리고 괴롭힘	-0.47	-0.58

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의 면담 및 담임 교사의 조언을 통해 왕따 학생을 선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전(事前)·사후(事後) 검사의 비교를 통해 사회성 향상 여부를 살펴 본 결과, 왕따 학생들의 사회성 지수에 있어서의 사전·사후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F값=1.17$, $p값=0.29$), 16명의 왕따 학생들 중 9명의 사회성 지수가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왕따 학생들에 대한 개별 상담이 병행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따에 대한 가해 경험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 보면 부모 생존여부, 부모 동거여부, 담임과의 관계는 $p<0.05$ 수준에서, 부모 친밀도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편부모하의 아이들이 양부모하의 아이들보다, 담임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왕따 가해 경험이 많았다. 이는 정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자(他者)인 부모나 담임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의 아이들이 친구를 대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왕따 피해 경험은 부모 친밀도, 부모 학력은 $p<0.05$ 수준에서, 경제적인 상태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경제적 상태가 곤란한 경우에 왕따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감소 및 예방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현상에 대한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각 학급의 왕따수와 왕따 현상 목격횟수의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p<0.05$)한 감소를 보여 효과가 있었다.

2.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각각 분석을 한 결

과 실험 집단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의미($p<0.1$)한 차이가 있었다.

3. 왕따 학생들의 사회성 지수의 사전·사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F값=1.17$, $p값=0.29$), 16명의 왕따 학생들 중 9명의 사회성 지수가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왕따 문제는 학생, 부모, 교사들이 그 심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특히 부모나 교사들이 왕따 현상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간과해서는 안되며 왕따 피해 학생은 물론 왕따 가해 학생 역시 처벌의 측면이 아닌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부모나 담임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수록 왕따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이들을 단순히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체로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왕따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예방적·즉시적·사후적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왕따 현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왕따 현상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방관자들과 심지어 왕따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학생들에 의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왕따 현상의 감소 효과뿐 아니라 왕따 예방의 측면에서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급에서 운영함으로써 평소 교육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존중의 학급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

셋째, 왕따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 왕따 문제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왕따를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생들 상호간에 자연스러운 교우 관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따 현상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왕따 가해 및 피해 학생을 대

상으로 개별상담이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왕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내에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자가 필요하며, 일반 교사들도 왕따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왕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있는 학급 운영자가 되기 위한 관심과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pp. 7-35.
- 김용태(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pp. 55-84.
- 김병성(1997), 『교육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 김정환(1999), 『교육연구 및 통계방법』, 서울 : 원미사.
- 박경숙(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박도순(1992), 『교육연구 방법론』, 서울 : 문음사.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조선일보(1998), "전국에 '왕따' 5,400명", 1998년 12월 8일자 조선일보, 27면.
- 조선일보(1999), "따돌림 피해 여중·초등생 많아", 1999년 1월 5일자 조선일보, 25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90), 『청소년활동지도 프로그램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尾木直樹(1996), 『いじめっ子その分析と克服法』, 東京 : 學場書房.
- Moreno, J. L.(1953), 『Who shall Survive?』, New York : Beacon House.
- Strain, P. S.(1982), 『Social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Rockville : Aspen.